



소형근(서울신대)

1. 서론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는 바빌론 포로일 것이다. 이러한 바빌론 포로의 시점을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단 1장; 왕하 24-25장; 대하 36장; 렘 52장). 다니엘과 세 친구의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느부사라단의 거둬드는 유다 예루살렘 침공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유다 땅은 갈대아 이방인들로부터 수차례 국권을 침탈당해 왔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시점은 구약성서의 보도대로 다양한 시기이지만,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난 시점은 딱 한 사건을 통해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또한 본 논문은 2022년 6월 21일 한국구약학회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이다.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는 주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하고, 다음 해인 통치 원년(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Edict of Cyrus)을 통해 포로 생활은 끝내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구역인 유다 지방으로 귀환을 시작했다. 이러한 귀환이 에스라-느헤미야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스 1-2, 7-8장; 느 2, 7장), 귀환한 자들이 유다 지방의 핵심 세력이 되어 소위 ‘골라’(גולא) 공동체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게 되었다. ‘골라’ 공동체의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페르시아 제국이 인정하는 ‘총독’의 신분으로 유다 지방을 다스렸으며, 또한 유다 공동체에 새로운 사상 주입을 위해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변모를 거듭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점부터 포로 이후 ‘골라’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시기까지를 포로 이후 ‘초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골라 공동체 지도자들의 신분들과 역할들 및 유다 공동체 신학 사상의 흐름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

2. 포로 이후 초기 ‘골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1) ‘골라’의 지도자들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느헤미야 7장)¹과 에스라 8장에 나온다. 에스라 2장(느헤미야 7장)은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온

1 알트(A. Alt)는 에스라 2장 목록이 골라의 땅 소유권을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며, 홀셔(G. Hölscher)는 주전 400년에 작성된 납세자 목록으로 이해했으며, 윌리엄슨은 다양한 목록들이 모여서 지금의 에스라 2장이 되었으며, 이 목록이 어떤 목적으로 모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참고,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Bd. II) (München: C. H. Beck's Verlagsbuchhandlung, 1959), 334; G. Hölscher, "Die Bücher Esra und Nehemia", E. Kautzsch(ed.),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Testaments* (Vol. 2) (Tübingen: J. C. B. Mohr, 1923), 504;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31-32.

자들의 명단이고, 에스라 8장은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에 온 자들의 명단이다. 느헤미야 2장에는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군대 장관과 마병의 에스코트(escort)로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느 2:11), 느헤미야와 동행했던 자들의 명단은 나오지 않는다. 에스라-느헤미야서 보도만을 놓고 봤을 때 바빌론 지역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골라’(גולא)는 3차에 걸쳐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슈타인스(G. Steins)는 에스라 2장의 명단을 1차 귀환자 명단으로 보고 있고,² 메릴(E. H. Merrill)도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스룹바벨(Zerubbabel)과 함께 귀환한 자들을 1차 귀환자 그룹으로 이해한다.³ 그리고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을 각각 두 번째 귀환과 세 번째 귀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외에도 골라 공동체에서 주요 인물로 소개된 지도자가 있었는데, 에스라 1장 8절의 세스바살(Sheshbazzar)이다. 세스바살은 유다 공동체에서 두 가지 직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에스라 1장 8절에서 ‘나시’(נָשִׁי)로, 에스라 5장 14절에서 ‘폐하’(הַפֶּהָ)로 나온다. 히브리어 ‘나시’는 ‘세속적인 통치자’(secular ruler)의 개념이고, ‘폐하’는 페르시아 왕의 관리로 유다 지방의 ‘총독’(governor)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라 2장 2절의 귀환 지도자 스룹바벨 또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학 1:1, 14; 2:2, 21). 분명한 것은 고레스 칙령으로 바빌론에서 귀환한 유다 지방에 두 명의 ‘총독’이 동시에 임명되었을 리 없다는 점이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동시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지도자들이었을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유다 예루살렘에 함께 오지 않았다

2 에리히 쉐어 외,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질곡: 분도출판사, 2015), 464, 467.

3 유진 H. 메릴 외, 『현대인을 위한 구약개론』 (유창걸 옮김) (서울: CLC, 2016), 548; 블렌킨소프 또한 스룹바벨을 첫 번째 귀환자들의 지도자였다 본다(스 2:2). 참고.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18.

면 둘 중에 누가 먼저 유다 예루살렘에 왔던 것일까?

에스라 2:2a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지도자 11명(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개, 빌산, 미스발, 비그왜, 르훔, 바아나)이 나온다. 그러나 에스라 2장 2a절과 유사 본문에 해당하는 느헤미야 7장 7a절에는 12명의 귀환 지도자(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라, 라야마, 나하마니, 모르드개, 빌산, 미스베렛, 비그왜, 르훔, 바아나)가 나온다.⁴ 그렇다면 에스라 2장 2a절은 귀환 지도자 명단에 왜 11명만을 기록한 것일까? 구약성서의 완전수인 12명을 채우지 않고, 왜 1명을 비워 두었던 것일까? 그것은 에스라 1장 8절의 세스바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에스라 2장 2a절은 에스라 1장 8절의 세스바살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11명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라 2:2a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시대 귀환자들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느헤미야 7장 7a절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귀환 지도자들을 모두 채우고 있는데,⁵ 놀랍게도 평신도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로 이어지는데 이 명단에는 세스바살이 빠져 있다. 또한 세스바살이 유다 예루살렘에 온 것은 고레스 칙령 직후로 고레스 2세 시대(주전 559-530년)로 볼 수 있지만, 스룹바벨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활동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주전 530-522년)나 다리오 1세 시기(주전 522-486년)로 볼 수 있다(학 1:1). 종합해 보면 세스바살은 고레스 칙령으로 바빌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1세대였고(스 1:7-8),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나 다리오 1세 시대에 돌아온 귀환 2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

4 이 두 본문(스 2:2a과 느 7:7a)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골라의 지도자는 8명이며, 스라야, 르엘라야, 미스발 3명은 에스라 본문에만, 아사라, 라야마, 나하마니, 미스베렛 4명은 느헤미야 본문에만 나온다. 참고, 소형근, 『공동체 개혁의 주역 에스라』 (용인: 킹덤북스, 2017), 74.

5 K.-D. Schunck, *Nehemia* (BKAT X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209.

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사이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귀환의 시간적 간격(interval)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세스바살의 이름은 아카드어로 ‘태양신이 아버지를 보호하다’(šaššu-ab-ušur)라는 의미이고, 스룹바벨의 이름은 아카드어로 ‘바빌론의 후손’(zêr-Bâbili)이라는 뜻이다.⁶ 이처럼 두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스바살을 역대상 3장 18절의 ‘세낫살’(שְׁנַאצָּר)과 동일 인물로 보고, 세스바살을 다윗계 후손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다.⁷ 이 논쟁을 촉발시킨 노트(M. Noth)는 자신의 저서(*Geschichte Israels*)에서 세스바살(שֶׁשְׁבַצָּר)의 바빌론식 이름을 ‘사마쉬-아플라-우추르’(šamaš-apla-ušur)로 제안했으나,⁸ 로젠탈(F. Rosenthal)은 이를 수정하여 아카드어 ‘신-아브-우추르’(Sin-ab-ušur)로 제안했다.⁹ 이와는 달리 마이어(E. Meyer)는 히브리어 세스바살의 이름을 70인역 전승에 따르면 ‘사사바사르’(Σασαβασ[σ]αρ)로도 읽을 수 있지만, 다른 이본들(Variante)에 따르면 ‘사나바사르’(Σαναβασαρ)로도 읽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¹⁰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표기 이름을 바빌론식 이름으로 재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사본들이나 역본들을 활용한다면 성서 전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성서본문 | 이름 | BHS | LXX |
|------------|------|--------------|--------------------------|
| 에스라 1장 8절 | 세스바살 | שֶׁשְׁבַצָּר | Σασαβασ[σ]αρ / Σαναβασαρ |
| 역대상 3장 18절 | 세낫살 | שְׁנַאצָּר | Σανεσαρ |

6 P.-R. Berger, “Zu den Name שֶׁשְׁבַצָּר und שְׁנַאצָּר”, ZAW 83 (1971), 98-100.

7 W. F. Albright, *The Biblical Period from Abraham to Ezra*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3), 86-87.

8 M. Noth, *Geschichte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5), 279.

9 F.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Wiesbaden: Harrassowitz, 1961), 98.

10 E. Meyer, “Zur Rechtfertigung”, ZAW 18 (1898), 339-344.

세스바살과 세낫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임에 틀림없으며, 두 이름에는 신적 요소가 포함된 이름(theophoric name)이다. 세스바살의 이름에 히브리어 자음 ‘쉰’ (שׁ)이 연달아 두 번 사용된 것은 고대 사회의 ‘태양신’에 해당하는 ‘사마쉬’ (šamaš)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사마쉬’는 보통 ‘사마쉬’ (שׁמׁשׁ)로도 사용하지만, ‘슈쉬’ (שׁשׁ)로도 더 자주 사용되었고,¹¹ 히브리어 ‘바브’ (ב)를 생략해서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¹² 그 경우에는 히브리어 자음 ‘쉰’이 두 번 연속해서 기록된다. 따라서 에스라 1장 8절의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태양신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상 3장 18절의 세낫살(שׁנׁשׁר)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달(moon) 신(‘Sin’)을 포함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의 산발랏(שׁנׁבׁלׁיט = sin-uballit, ‘달 신이 생명을 주었다’)의 경우에는 ‘쉰’ (שׁ) 대신 ‘사메크’ (ס)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 ‘쉰’ (שׁ)과 ‘신’ (שׁ)과 ‘짜메크’ (ס)가 고대 서체에서 혼용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반적으로 성명학적 관점(onomastic perspective)¹⁴에서 볼 때 사람의 이름은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주게 되며, 그 부모의 신앙을 반영하여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스바살은 ‘태양신’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이며, 세낫살은 ‘달신’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이기 때문에 세스바살과 세낫살을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라 1장 8절의 세스바살은 역대상 3장 18절의 세낫살이 아니기 때문에 세스바살의 출신성분을 다윗계의 후손이라 말하기 어려워졌다.¹⁵

11 K. L. Tallqvist, *Assyrian Personal Names* (ASSF 43/1) (Helsingfors: Officina typographica Societatis litterariae Fennicae, 1914), 177b, 209a, 213b.

12 P.-R. Berger, *윗글*, 98.

13 ‘세낫살’의 아카드어 의미는 ‘달 신이 보호하다’ (sin-ušur)라는 뜻이다.

14 J. H. Tigay,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Harvard Semitic Studies 31) (Atlanta: Scholars, 1986), xv-114.

15 최근에는 세스바살을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임명한 마지막 총독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 다음

결국 바빌론에 강제 이주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구약성서가 말하는 귀환은 최소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즉, 고레스 칙령 직후 세스바살이 주도하는 첫 번째 귀환 그룹이 있었고,¹⁶ 캄비세스 혹은 다리오 왕 시대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귀환 그룹이 있었으며, 아닥사스다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룹이 존재했었다.

2) '골라'의 기타 구성원들

에스라 2장은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골라 공동체 중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2절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온 귀환 지도자 그룹(2절)이 나오고, 3-19절은 당대 유력한 17개 평신도 가문 명단이 나온다. 20-35절은 성읍명으로 된 목록으로 가문의 우두머리는 알 수 없지만 과거 땅을 소유하지 않은 가난한 자들의 목록으로 보인다.¹⁷ 36-39절은 제사장 가문 중에 특별히 네 가문(여다야, 임벨, 바스홀, 하림)만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문들은 포로 이후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이다.¹⁸ 40절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레위 사람 74명이며, 레위 사람은 포로 이후 성전에서 제사장 아래 있던 하위직 성전 봉사자들이다.¹⁹ 41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전 제의 음악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

글을 참고하라. Jason M. Silverman, "Sheshbazzar, a Judean or a Babylonian? A Note on his Identity", J. Stökl & C. Waerzeggers(eds.) *Exile and Return: The Babylonian Context* (BZAW 478) (Berlin: de Gruyter, 2015), 308-321.

16 알베르츠는 주전 522년 봄부터 521년 가을까지 바빌론을 강타했던 세 차례 반란과 다리오 1세가 바빌론을 함락시킨 후 도입했던 제국의 엄격한 조직이 포로민들로 하여금 유다 예루살렘 귀환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고.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151-152.

17 E. Meyer, *Die Entstehung des Judentums* (Halle: Max Niemeyer, 1896), 152-154.

18 소형근, 윗글, 82.

19 윗글, 85.

하던 자들이다.²⁰ 42절의 문지기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성전 문 개폐(開閉)의 책임을 맡았고, 성전 모든 방과 공간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다(대상 9:26-27). 43-54절의 느디넘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자들로 성전의 허드렛일을 도맡았던 자들이다. 55-58절에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 일으켰던 역군들(왕상 9:15)의 후손들로 훗날 느디넘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일을 담당했던 그룹으로 보인다.²¹ 59-63절에는 정채 모를 가문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빌론 여러 지역들(델멜라, 텔하르사, 그룸, 앓단, 임벨)에서 올라온 자들로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포로 이후 족보와 정통성을 중요시하던 골라 공동체가 이들의 목록을 따로 관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65절에는 기타 남녀 종들의 목록이 나온다.

이처럼 바빌론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은 과거 남유다에서 유력했던 가문들의 일부와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이후 역군으로 살았던 자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귀환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복한 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이들이 소유했던 가축들(말 736, 노새 245, 낙타 435, 나귀 6,722)과 이들이 소유한 종들의 규모(남여종이 7,337, 노래하는 남녀 200)를 보면 바빌론에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던 자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골라'의 '하트루' (ḥatru) 활동

'하트루'는 바빌론의 '무라슈 문서' (Murašû)에서 언급된 용어로 '하트루'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지만 무라슈 문서가 바빌론 인

20 J. Blenkinsopp,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89.

21 윗글, 90-91.

근 니푸르(Nippur)에서 발견됨으로 이 지역에 거주했던 유다 사람들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케 해 준다. 무라슈 문서에는 ‘하트루’라 불리던 일종의 “봉건 연합체”(feudal association)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연합체의 회원들로서는 군인들, 목수들, 말 키우는 사람들, 다리 건설자들, 목동들, 노 젓는 사람들과 같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바빌론 사람들이 아니라, 이란인, 두로인, 카리브인, 아랍인, 키메르인, 인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에 끌려왔던 다양한 인종들이 만든 연합체였다.²² 이 무라슈에서 발견된 문서들의 기록은 주전 5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하며, 대부분은 부동산(estate) 계약과 관련된 문서들과 행정적인 합의를 다루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연합체 회원들은 바빌론 정부로부터 한 구획의 땅을 받아 이 땅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들이 소유한 땅들의 농업적이고, 법률적이고, 재정적인 처리와 관리였다.²³ 또한 바빌론의 관리(šaknu)는 ‘하트루’ 회원들을 관리 감독했으며, ‘하트루’의 경제적 이득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신속히 납부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²⁴ 무라슈 문서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유다 사람’(Judean)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식 이름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 후손들 중에 ‘하트루’로 활동하던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민의 신분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으며, ‘하트루’(ḥatru)라는 봉건 연합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림으로 많은 노비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부유한 자들이었다.²⁵ ‘하트루’가 바빌론 제국 시대에 만

22 M. W. Stolper,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šû Archive, the Murašû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72-79.

23 윗글, 82.

24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170.

25 M. W. Stolper, 윗글, 70-103.

들어진 연합체였지만, 포로 이후 시대인 페르시아 시대에도 ‘하트루’의 모습은 여전히 지속되었다고 본다.

3. 포로 이후 초기 상황들

1) 다윗 왕조의 회복기대

바빌론 제국이 멸망한 시점인 주전 539년에 유다 백성의 포로기가 종료되었으며, 고레스 2세에 의한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과 함께 유다 백성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빌론에서 강제 이주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골라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목록에 과거 성전에서 활동하던 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포로지 바빌론에서도 제의와 관련된 그 어떤 종교적 활동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귀환자들이 가져왔던 보물들(스 2:69)과 가축들(스 2:66-67)과 종들(스 2:65)은 이들의 유복한 경제적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포로 이후 지도자들인 세스바살과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 지방 본토민이 아니라, 바빌론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게 붙여진 ‘호칭’이다. 포로 이후 지도자들 모두가 바빌론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다는 것은 포로 이후 유다 지방의 주도권이 유다 지방 본토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환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있었다는 의미이다. 구약성서 저자들은 귀환자 ‘골라’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포로기에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던 오만한 지도자들이 포로민들에게 유다 예루살렘 땅은 자신들의 땅이니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 말할 때(겔 11:15), 하나님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편이 되어 이들에게 “잠깐”²⁶ 동안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한다(겔 11:16).²⁷ 또한 역대기는 바빌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칼에서 살아남은 자” 모두를 바빌론 땅으로 사로잡아 갔다고 보도한다(대하 36:20). 즉, 유다 땅에는 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에스라 본문에는 제2성전건축을 방해하던 그룹 중에 “그 땅 백성”(עַמְּהָרָא)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었다.²⁸ 이들의 방해로 성전건축이 다리오 1세 2년까지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다(스 4:24). 종합하면,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주도세력이 되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지도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호칭’이다. 세스바살에 대한 호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나시’(נָשִׂא, 스 1:8)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 ‘폐하’(פָּהַא, 스 5:14)이다. 세스바살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던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히브리어 ‘폐하’로 소개된 것은 이해하겠으나,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무슨 의도인지 세스바살을 ‘나시’로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나시’는 구약성서에서 주로 ‘왕’(왕상 11:34; 겔 12:10, 12; 19:1; 21:17, 30 등)으로 번역했으며(KBL³, 687), 에스라 1장 8절의 영어성서 일부 본문(KJV, NAS, NRSV 등)에는 ‘왕자’(prince)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

26 우리말 “잠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아트’(מֵאָה)이며, ‘시간’의 개념으로 ‘잠시동안’(for a little while)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고, 또한 ‘작은 성전’의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 박철우, 『에스겔』 (성서주석 2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31.

27 윗글, 230-231.

28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16.

가 세스바살에게만 왕적인 칭호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었다. 세스바살의 뒤를 이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스룹바벨 또한 유다 공동체 내에서 총독의 신분 외에 왕적인 신분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예언자 학개는 스룹바벨에게 왕적인 신분을 부여했다. 학개 2장 23절에는 “그 날”(ביום ההוא)에 스룹바벨을 세우고,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인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탐’(חֹתָם)으로 보통 ‘도장’(출 28:11, 21, 36), ‘왕의 도장’(왕상 21:8)으로 번역한다. 스미스(R. L. Smith)는 이 ‘호탐’을 종말론적 신탁 안에서 메시아적 기능으로 해석하며,²⁹ 성주진도 ‘호탐’을 메시아가 오실 일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한다.³⁰ 그러나 포로 이후 초기 유다 공동체에 붙었던 다윗 왕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다윗계의 후손(대상 3:19)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호탐’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는 에스겔 40-48장의 성전법(law of the temple)에 자주 나오는 “이상적인 세속 통치자”로서 히브리어 ‘나시’와 세스바살의 프로필이 일치한다고 주장한다.³¹ 즉, 예언자 에스겔은 환상보도를 통해 세속 통치자 ‘나시’가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며(겔 45:17; 46:1-8),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겔 45:8-9), 성전 제의의 운영을 위해 물질적인 제공을 지원하는 통치자로서 의무를 강조한다(겔 45:13-25; 46:11-15).³² 이러한 ‘나시’에 대한 기대감이 포로 이후 초기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스가랴 본문에서도 나타난다. 스가랴 6장 13절에는 스룹바벨이 주의 성전을 짓고, 위엄을 갖추어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참고. 우리말 새 번역). 즉, 학개 2장 23절이나 스가랴 6장 13절은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제국이

29 R. L. Smith, *Micha-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1984), 163.

30 성주진 외, 『학개, 스가랴, 말라기』 (두란노 HOW 주석 33)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86.

31 조셉 블렌킨소프, *윗글*, 218.

32 *윗글*, 217.

임명했던 총독의 신분이었지만, 골라 공동체는 스룹바벨을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왕적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다.³³ 스가랴 본문에서 대제사장 예수가 스룹바벨 보다 더 부각되었던 본문들은 다윗 왕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된 후 등장한 후대 본문들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면류관(מַלְאָכָה)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슥 6:11),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가 “평화의 의논”을 해야 하며(슥 6:13b), 그 면류관을 “야훼의 전 안에 두라”(슥 6:14)는 것은 역사적 스가랴의 글이라기 보다 편집자의 손길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결국 포로 이후 초기에 유다 공동체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왕조 회복을 꿈꾸었으며, 이는 당대 예언자 그룹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³⁵

2)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임무 수행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활동하던 시대를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골라 공동체 가운데 다윗 왕조 회복을 기대하며, 세스바살을 ‘나시’로, 스룹바벨을 왕적 신분으로 인정하던 분위기였다. 바탈(A. Barta)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³⁶ 야벳(S. Japhet)은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오는

33 소형근, “포로 이후 초기에 나타난 왕권과 제사장권”, 『구약논단』 36집 (2010), 138-153.

34 A. S. van der Woude, “Serrubabel und die messianischen Erwartungen bei Sacharja”, ZAW 100 (1988), 138-156.

35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에 유다 왕조 회복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했던 구약성서의 본문들은 모두 예언서 본문들이나 예언자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학개(2:23), 스가랴(6:13), 요엘(3:20), 느헤미야 본문에 나오는 ‘한 예언자’ (6:7) 등이다. 또한 구약성서에는 ‘스룹바벨과 예수가(혹은 ‘여호수아’)가 함께 나오는 본문이 12회(스 2:2; 3:2, 8; 4:3; 5:2; 느 7:7; 12:1; 학 1:1, 12, 14; 2:2, 4) 사용되는데, 에스라 3장 2절에 나오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헌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대제사장 예수가보다 스룹바벨이 먼저 나온다. 이는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 스룹바벨의 위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36 A. Barta, “Once more, who was Sheshbazzar?”, *Beth Mikra* 24 (1979), 357-389. 요세푸스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물로 생각하기도 하고(*Ant.* 11, 11-14), 세스바살을 스달보스네(스 5:3, 6; 6:6, 13)와 착각하여 시리아와 팔레스틴의 총독장(satrap)으로 생각하기도 했다(*Ant.* 11, 93, 100).

차이를 지적하면서 분명히 다른 인물들이었다고 말한다.³⁷ 이런 논쟁은 두 사람의 유사한 호칭과 역할에서 오는 것이지만, 여하튼 제1차 귀환 지도자였던 세스바살은 유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대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세스바살이 다윗 왕조의 후손³⁸이었던지는 구약성서의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부른 판단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역대기 족보에서 혈통상 다윗계 후손이기 때문에 세스바살보다 스룹바벨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던 것이 분명하다. 스룹바벨은 구약성서에 역대기(대상 3:19)와 에스라-느헤미야서(스 2:2; 3:2, 8; 4:2, 3; 5:2; 느 7:7; 12:1, 47)와 학개서(학 1:1, 12, 14; 2:2, 4, 21, 23)와 스가랴서(스 4:6, 7, 9, 10)에서만 언급되는 이름이다. 스룹바벨은 바빌론식 이름(zēr-bābili, “바빌론의 후손”)이며, 포로 이후에만 사용되던 이름이었다. 스룹바벨이 언급된 구약성서 본문은 주로 ‘족보목록’이나, ‘귀환목록’이나, ‘제2성전 건축과정’에서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의 ‘왕권’과 ‘강력한 리더십’과 관련하여 나온다.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의 제1과제는 고레스 칙령(주전 538년)³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성전건축의 과업을 위임받아 유다 예루살렘에 왔던 세스바살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후임 총독 스룹바벨 시기에 와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성전 터를 놓았으며(스 3:3), 성전공사가 진행되었다(스 3:8-9). 그러나 성전 공사는 대적들의 방해로 다니오 2년(주전 520년)까지 중단된다(스 5:24). 중단된 성전건축의 불씨를 살렸던 사람들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였다. 역사적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활동은 주전 520년(학 1:1; 2:1, 10; 스 1:1, 7)에서 주전 518년(스 7:1)까지였으며, 제2성전공사는 주전 516년에 마쳤다(스 6:15). 예언자 학개

37 S. Japhet, “Sheshbazzar and Zerubbabel”, ZAW 94 (1982), 66-98.

38 세스바살을 역대상 3장 18절의 여고냐의 아들 세낫살과 동일인물로 보는 주장이 있는데, 세스바살의 바빌론식 이름과 세낫살의 바빌론식 이름은 전혀 다르다. 참고, 존 브라이트, 윗글, 502-503.

39 참고,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48집 (2013), 128-166.

와 스가라는 성전완공을 못 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중단되었던 성전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일어나 도왔지만(스 5:2), 성전공사의 마무리 보도(스 6:14)에는 스룹바벨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 독자들은 놀라게 된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이름은 에스라 5장 2절 이후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스룹바벨의 빈자리를 “유다 장로들”(שְׂבָיִי וְיָהוּדָא, 스 5:5, 9; 6:7, 8, 14)이 대신하게 된다. 블렌킨소프는 제2성전 건축의 토대를 놓았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어느 시점부터 역사의 무대에서 실종되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⁴⁰ 장춘식은 스룹바벨의 이름이 성전건축 도중에 빠진 이유는 성전건축의 주도권이 페르시아 정부에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한다.⁴¹ 펜삼(F. C. Fensham)은 스룹바벨이 성전건축 이전에 죽었다고 하고,⁴² 에스케나지(T. C. Eskenazi)는 성전건축 본문이 백성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빠진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에스라 본문에서 성전건축의 토대를 놓았던 스룹바벨(스 3:2-3, 8)과 성전건축의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스룹바벨(스 4:3; 5:2)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보다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실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⁴⁴ 그러면 스룹바벨은 어떤 이유로 성전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사라진 것일까? 브라이트(J. Bright)는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스룹바벨이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명성을 회복시켜줄 인물로 기대를

40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124.

41 장춘식, *읽글*, 130.

42 F. C. Fensham,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2), 78-79.

43 T. C. Eskenazi, *In an Age of Prose: a Literary approach to Ezra-Nehemiah* (Atlanta: Scholars Press, 1988), 48-53.

44 알베르츠는 “아마도 페르시아의 개입 결과로서”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라가 주전 515년 제2성전 봉헌식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참고, 라이너 알베르츠, *읽글*, 170-171.

받았다고 말한다.⁴⁵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음해했던 내용들 중에 “유다에 왕(מלך)이 있다”(느 6:7)는 소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⁴⁶ 즉,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유다 지방의 ‘왕’으로 음해하려 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유의 소문을 페르시아 왕실에서 알았다면 제국의 왕은 이 문제(반역)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은 혈통적으로 다윗계의 후손이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윗 왕조 회복을 꿈꾸게 했던 최적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골라 공동체는 스룹바벨을 왕적인 지도자로 이해했다. 이런 정보를 페르시아 왕실에서 알았다면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성전건축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스룹바벨이 도중에 실종된 것은 페르시아 정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스룹바벨 이후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올 때까지 유다 지방에 후임 총독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⁴⁷ 그렇다면 스룹바벨이 언제 사라졌을까? 제2성전건축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고, 학개의 성전재건 촉구(주전 520년)로 성전건축이 재개되어 완공된 시점이 다리오 6년(주전 516년)이었다. 따라서 스룹바벨은 주전 520년에서 주전 516년 사이 어느 시점에 유다 공동체에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포로 이후 에스라 본문에 그토록 열망하던 성전 봉헌과 관련된 당대의 전승이 제대로 기술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성전재건이 기운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동반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⁴⁸

45 존 브라이트, *읽글*, 507-511.

46 스미스는 느헤미야를 전형적인 폭군으로 이해했다. 다음 글을 참고하라. M. Smith, *Palestinian Parties and Politics That Shaped the Old Test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107-109.

47 소형근,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74집 (2019), 342-364.

48 L. Waterman, “The Camouflaged Purge of Three Messianic Conspirators”, *JNES* 13 (1954), 73-78; 라이너 알베르츠, *읽글*, 171.

3) 사상적 전환

다윗 왕조 부활을 꿈꿔 왔던 유다 공동체가 스룹바벨의 사라짐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역대상 3장은 다윗 왕조의 족보목록인데, 이 족보목록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이후 예료에 내의 일곱 아들들(대상 3:24)까지 기록되어 있다. 특히,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냐(=여호야긴)의 후손에 대한 족보는 구약성서에서 역대기가 유일하다. 이 족보목록은 다음과 같다.

여고냐(=여호야긴)



스알디엘

말기람

브다야 → 스룹바벨 → 므술람

세낫살 시므이 하나냐 → 블라다

여가마 매제 슬로밋 여사야

호사마 허수마 르바야의 아들(들)

느다바 오렐 아르난의 아들들

베레가 오바다의 아들들

하사다 스가냐의 아들들 → 스마야 → 핫두스

유삼혜셋(5) 이갈

바리아

느아라 → 예료에내 → 호다위야

사밧(6) 히스기야 엘리아십

아스리감(3) 블리야

악굽

요하난

들리야

아나니(7)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여고나(=여호야긴)의 족보가 셋째 아들 브다야로 이어지고, 브다야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 나오며, 스룹바벨의 둘째 아들 하나야로 족보는 이어진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계의 족보가 하나냐의 두 아들(블라야와 여사야)로 이어지지 않고, 족보 형식을 깨고 등장하는 “스가냐의 아들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상 3:21에 히브리어 ‘베네’ (בְּנֵי)와 함께 등장하는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 스룹바벨의 둘째 아들 하나냐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⁴⁹ 르메(A. Lemaire)는 하나냐의 계보를 잇는 스가냐를 스룹바벨의 사위라고 말한다.⁵⁰ 그러나 스룹바벨과 스가냐가 장인과 사위 관계였다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구약성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역대상 3:21에서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라고 언급하면서 이후 히브리어 ‘베네’를 동반한 새로운 형식의 자손들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스룹바벨의 혈통적 자손이 하나냐의 두 아들 블라다와 여사야로 끝났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고대 사회의 족보는 “고정된”(fixed) 자료가 아니라, 당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유동적”(fluid) 자료였다.⁵¹ 하나냐의 두 아들들(블라다와 여사야) 이후에 등장하는 목록은 다윗 혈통과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49 참고, 임태수, 『역대상』 (성서주석 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24.

50 A. Lemaire, “Zorobabel et la Judée à la lumière de l'épigraphie (Fin du VIe s. av. J.-C.)”, *RB* 103 (1993), 48-57.

51 R. R. Wilson,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YNER 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38-45.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역대기 족보에서는 레위 지파로 편입시킨다(대상 6:27-28). 구약성서의 족보는 혈연관계에서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이름이 삭제되기도 하고, 때로 추가되기도 했다. 다음을 참고하라.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27집) (2008), 138-158; 소형근, “포로 이후 유대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 38집 (2010), 54-70.

높다. 그렇다면 혈통적 다윗계는 스룹바벨의 손자 세대로 끝난다.⁵² 스룹바벨의 혈통이 끊기는 상황에서 골라 공동체는 다윗 왕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고, 이제는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만 하는 신정론(theocracy)으로 사상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전환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역대기에 잘 반영되고 있다.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이 본문과 평행본문으로 역대상 17장에 다윗 언약이 보도되고 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역하면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까지 존속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까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이다. 역대상 17장 14절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를 나의 집과 나의 나라에 영원까지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까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이다. 역대상 17장 14절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본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역대기 본문은 사무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차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여 본래 다윗 언약 본문을 수정해서 재해석했다. 즉,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골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제는 다윗 왕조에 대한 희구(希求)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House of God)과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⁵³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역대기 저자는 포로 이후 골라 공동체를 대변하는 신학자였다.⁵⁴

52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의 다윗계 족보(스알디엘→스룹바벨→아비훗→엘리아김)와 누가복음 3장의 다윗계 족보(스알디엘→스룹바벨→레사→요아난)는 스룹바벨 자손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보도되고 있으며, 역대상 3장의 다윗계 족보와도 다르다.

53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성서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신정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다.

54 참고. 소형근, 윗글, 「구약논단」 36집, 138-153.

4. 결론

지금까지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 ‘골라’ 공동체의 상황과 신학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 바빌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골라’ 그룹이 세스바살이 중심이 되었고, 두 번째 ‘골라’ 그룹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귀환 그룹이었다.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으며, 세스바살과 세냐살(대상 3:18) 또한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바빌론 지역에서 ‘하트루’라는 봉건 연합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렸으며, 포로 이후 초기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통한 다윗 왕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룹바벨이 제2성전건축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사라졌고, 스룹바벨의 족보 또한 불분명해지면서 이후 ‘골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를 희구하는 사상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빌론 포로 이후 초기는 끝난다.

5. 참고문헌

- 놀,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역사』 (한국구약학총서 10) (소형근 옮김)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9).
-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박철우, 『에스겔』 (성서주석 2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성주진 외, 『학개, 스가랴, 말라기』 (두란노 HOW 주석 33)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소형근, “포로 이후 초기에 나타난 왕권과 제사장권”, 『구약논단』 36집 (2010), 138-153.
- _____,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 38집 (2010), 138-153.

- _____, 『공동체 개혁의 주역 에스라』 (용인: 킹덤북스, 2017).
-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의 난제들과 그 해법들”, 『구약논단』 74집 (2019), 342-364.
- 에리히 쉐어 외,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칠곡: 분도출판사, 2015).
- 유진 H. 메릴 외, 『현대인을 위한 구약개론』 (유창걸 옮김) (서울: CLC, 2016).
- 이종근, “고레스 신탁과 고레스 실린더”, 『구약논단』 48집 (2013), 128-166.
- 임태수, 『역대상』 (성서주석 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장춘식, 『에스라-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3판 증보판)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27집 (2008), 138-158.
- Albright, W. F., *The Biblical Period from Abraham to Ezra*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3).
- Alt, A.,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Bd. II) (München: C. H. Beck's Verlagsbuchhandlung, 1959).
- Bartal, A., “Once more, who was Sheshbazzar?”, *Beth Mikra* 24 (1979), 357-389.
- Berger, P.-R., “Zu den Namen שֵׁשׁבַּצַר and שְׁנַאֲזַר”, *ZAW* 83 (1971), 98-100.
- Blenkinsopp, J.,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 _____,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 Emerton, J. A., “Did Ezra Go to Jerusalem in 428 B.C.?”, *JTS* XVII (1966), 1-19.
- Eskenazi, T. C., *In an Age of Prose: a Literary approach to Ezra-Nehemiah*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Fensham, F. C.,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2).
- Galling, K., *Die Bücher der Chronik Esra, Nehemia* (ATD 12) (Berlin: Evangelische Verlaganstalt, 1958).
- Hölscher, G., “Die Bücher Esra und Nehemia”, E. Kautzsch(ed.), *Die heilige Schrift*

- des Alten Testamentes* (Vol. 2) (Tübingen: J. C. B. Mohr, 1923).
- Japhet, S., “Sheshbazzar and Zerubbabel”, *ZAW* 94 (1982), 66-98.
- Lemaire, A., “Zorobabel et la Juddée à la lumière de l’ épigraphie (Fin du VIe s. av. J.-C.)”, *RB* 103 (1993), 48-57.
- Meyer, E., *Die Entstehung des Judentums* (Halle: Max Niemeyer, 1896).
- _____, “Zur Rechtfertigung”, *ZAW* 18 (1898), 339-344.
- Noth, M., *Geschichte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5).
- Rosenthal, F.,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Wiesbaden: Harrassowitz, 1961).
- Schunck, K.-D., *Nehemia* (BKAT X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 Silverman, Jason M., “Sheshbazzar, a Judean or a Babylonian? A Note on his Identity”, J. Stökl & C. Waerzeggers(eds.) *Exile and Return: The Babylonian Context* (BZAW 478) (Berlin: de Gruyter, 2015), 308-321.
- Smith, M., *Palestinian Parties and Politics That Shaped the Old Test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 Smith, R. L., *Micha-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1984).
- Stolper, M. W.,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šû Archive, the Murašû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 Tallqvist, K. L., *Assyrian Personal Names* (ASSF 43/1) (Helsingfors: Officina typographica Societatis litterariae Fennicae, 1914).
- Tigay, J. H.,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Harvard Semitic Studies 31) (Atlanta: Scholars, 1986).
- Waterman, L., “The Camouflaged Purge of Three Messianic Conspirators”, *JNES* 13 (1954), 73-78.
-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 Wilson, R. R.,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YNER 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van der Woude, A. S., “Serrubabel und die messianischen Erwartungen bei Sacharja”, *ZAW* 100 (1988), 138-156.

주제어

세스바살

스룹바벨

골라

총독

신정론

포로 이후 초기

A Study on the Theological Flow of the Early 'golah' Community in Post-Exilic Period

Hyeong-Geun S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and theological flow of the early 'golah' community in the post-exilic period. Sheshbazzar was the center of the first 'golah' group that returned from Babylon to Jerusalem in Judah through the edict of Cyrus, and the second 'golah' group was a return group centered on Zerubbabel. It was revealed that Sheshbazzar and Zerubbabel could not be the same person, and neither Sheshbazzar nor Shenazzar (1 Chr 3:18) could be the same person. As a result, the returnees from Babylon were at least four groups, centered around Sheshbazzar, Zerub-

www.kci.go.kr

babel, Ezra, and Nehemiah. Those returning from Babylon enjoyed by nature considerable economic benefits through a feudal association called 'hatru' in the Babylonian region, and it is true that there were high expect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dynasty through Sheshbazzar and Zerubbabel in the early days after the captivity. Namely, it can be discerned from the title of 'nasi' by Sheshbazzar and through the status of Zerubbabel in Haggai and Zechariah (Hag 2:23; Zech 6:13). However, as Zerubbabel did not finish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and disappeared, the genealogy of Zerubbabel in 1 Chr 3 also became unclear, and the lineage of David ends with the grandson of Zerubbabel (1 Chr 3:21). With Zerubbabel's lineage cut off, the community of 'golah' could no longer have expect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dynasty, and now it has made an ideological transition to theocracy, which must expect God's reign, not of the human king. Afterwards, the 'golah' community faced an ideological change in seeking the kingdom of God. Thus ended the early period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Keywords

Sheshbazzar

Zerubbabel

golah

governor

theocracy

Early Post-Exilic Period

- 투고일: 2022년 6월 27일
- 심사일: 2022년 8월 9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16일

www.kci.go.kr